

2026. 7. 10
금요일(주간)
제 868호

등록번호 광주 다 00100
(1999년 7월 2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社是
복음·선교·화합

정통 기독교 신문 **미션리**

발행·편집인 : 박 현 주
발행소 : 미션21
인쇄처 : (주)대한칼라
대표전화 : (062) 367-9109
FAX : (062) 367-9108
e-mail : ph2930@nate.com
(우) 61652
광주광역시 남구 칠산로 68(칠산동
184-1 등삼당)

미션21 일금계좌
농협 645-02-066108
여금주 : 박 현 주
국민은행 573-01-0045-028
광주은행 146-127-005850
여금주 : (주) 미션21
구독 및 광고문의 (062) 367-9109

창간 27주년 특집 20면(I) 지면 안내

- | | | |
|----------------------|------------------------|------------------------|
| 2 보도 / 더디오 칼럼 | 5 특집 II - 녹색교회② 광주YMCA | 9 특집 VII - 창조과학회 기고① |
| 3 특집 I - 오방 최홍종③ | 6 특집 III - 희년사회 | 11 영상 - 영상 / 교육 |
| 4 특집 II - 한국교회 정치참여④ | 7 특집 V - 광고협 대표회장 인터뷰 | 15 교육 - 오피니언 / 건강 / 선교 |

피종진 목사 7월 국·내외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1948년 1월 15일 생)는 1971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73년 목회자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1975년 1월 15일 창립된 '피종진교회'의 초대 목사로 섬기고 있다. 1980년 1월 15일 창립된 '피종진교회'의 초대 목사로 섬기고 있다. 1980년 1월 15일 창립된 '피종진교회'의 초대 목사로 섬기고 있다.

주요 경력: 1973년 목회자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1975년 1월 15일 창립된 '피종진교회'의 초대 목사로 섬기고 있다. 1980년 1월 15일 창립된 '피종진교회'의 초대 목사로 섬기고 있다.

주요 경력: 1973년 목회자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1975년 1월 15일 창립된 '피종진교회'의 초대 목사로 섬기고 있다. 1980년 1월 15일 창립된 '피종진교회'의 초대 목사로 섬기고 있다.

“서남권 800조 첨단산업 투자 환영”

광주YMCA·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남부지구 성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과 국가균형발전 전환점 기대

광주YMCA와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남부지구는 지난 7월 2일 성명을 내고 “이제부터 정부 기 발표된 서남권 800조 규모의 첨단 반도체·AI 투자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이들은 “이번 투자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나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서남권으로 확장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기반과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미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광주와 전남은 오랫동안 국가 산업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그 결과 청년들은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났고, 지역은 인구감소와 산업 공동화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말하고 “이번 투자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번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기반 마련, 지역 대학과 기업의 상생, AI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져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기업은 이번 투자가 단순한 공장 건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양성하고 채용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산업생태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전력과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는 환경 보전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기독병원선교회가 '해외 의료취약 선교지역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케냐 모고티오 지역병원 의료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케냐 모고티오 지역병원 의료장비 지원사업 선정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수술용 전기수술기(ESU) 지원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수술환경 조성·의료서비스 향상

광주기독병원선교회가 대한기독교선교회가 주관하는 '해외 의료취약 선교지역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케냐 모고티오 지역병원 의료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케냐 바링고주

모고티오 지역병원의 노후 의료장비 교체와 수술장비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현지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기독병원은 케냐 모고티오 지역병원과 의료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개원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 11월에는 의료선교팀을 현지에 파견해 모고티오 지역병원과 인근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 캠프를 실시했으며, 의료진 22명이 참여해 2,100여 명의 주민을 진료하고 9건의 수술을 시행했다.

당시 의료선교 활동을 통해 모고티오 지역병원이 노후화된 의료장비와 부족한 수술장비로 인해 진료와 수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으며,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장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전기수술기(ESU, Electrosurgical Unit)는 외과 및 신장 수술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절개와 지혈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수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비가 설치되면 지역병원의 수술 환경 개선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희 선교회장은 “이번 지원사업 선정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케냐 모고티오 지역과의 협력을 지속하며 의료선교를 통한 생명 나눔과 사랑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예정활동 총회회관에서 '교회 공적의 역할: 이웃들, 사회들, 세계들'을 주제로 열린 제110회 핀셋 포럼.

돌봄 주제 '공적교회의 역할' 핀셋 포럼

예정활동 총회 정책연구소, 지난 2일 총회회관에서
개혁주의 신학 기반 공공성 회복·정책대안 마련

예정 활동 총회 정책연구소(이장산 신원기 목사·소장 노재경 목사)는 7월 2일 총회회관에서 '공적 교회의 역할: 이웃들, 사회들, 세계들'을 주제로 제110회 핀셋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학 기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공적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윤영민 교수(중신대신학대 학원)는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를 단순한 교세 감소가 아닌 개교회주의와 성장주의, 변형주의, 정치화 진영화, 공식 윤리 약화로 인한 '공공성 상실'로 진단했다. 윤 교수는 성경과 칼빈, 카이퍼, 바빙크의 개혁주의 전통에 근거해, 교회가 세상 도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상을 변화하는 공적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교회 역할에 대한 탐색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한 구재영 교수(한양사이버대)는 2026년 3월 본격 시행될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을 바탕으로 교회의 복지적 역할을 고찰했다. 구 교수는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문화와 과도한 시장 중심적 구조로 인해 현장 통합돌봄 체계가 파편화·분절화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해 온 교회가 단순한 자선 공급자를 넘어, 공식적인 거버넌스 파트너이자 조정자로 편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 교수는 교회가 공유 주방을 통한 식사 지원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류공간을 돌봄

거점으로 개방함으로써 비공식 관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제적 태도를 지양하고, 종교적 강요나 전도의 수단으로 돌봄을 도구화하지 않는 윤리적 성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박영 목사(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교단의 환경선교와 10개년 정책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박사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정의와 책임, 신학적 정지기의 사명의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공공신학, 생태신학을 통합하여 교회의 환경목회가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건물 중심의 사역 구조를 가진 한국교회의 탄소배출 실태를 지적하며, LED 교체나 태양광 발전 도입, 이동 수단 개선을 통해 비효율적인 에너지 구조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션리 창간27주년



“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업”

모든 시스템

차별화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방송 영상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사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이노파크식스틴 마동 301호
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B1센터 503호
H.P 010-4138-7532 TEL 062-573-9997

- ▶ 조달청등록인증기업(최우수등급)
- ▶ 정보통신공사사업 면허 보유 기업
- ▶ 공장등록 / 직접생산증명 보유
- ▶ 직접 수입을 통한 설계 / 시공 / AS 까지 직접 진행
- ▶ 음향 / 영상 공사 전문
- ▶ 타업체 LED 스크린 AS 가능

실적으로, 증명합니다!

지면 하나에 다 실지 못할 정도의 수많은 실적으로 쌓아온 오랜 경험과 전문성으로,
교회의 환경에 최적화된 LED 스크린 시공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배의 감동을 더하는 선명한 화질과 안정적인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